

공동체 소식

▣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 현금

- 7월 7일(연중 제14주일)
- 올해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남미 한인 선교사 모임(AMICAL)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대륙 한인 선교사 모임(KAM)에 후원됩니다.(게시판 참조)

▣ 주일학교 교리 방학

-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근처 한인성당이나 미국성당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교우 가정 주소 확인

- 각 구역별 가정 주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구역장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된 주소/연락처는 각 구역장님이 총구역장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 7월 구역모임 안내

- 2구역 - 12일(금) 7시** 김태중 예레미아 가정
7729 Mohawk Dr. Prairie Village KS 66208
- 1구역 - 13일(토) 7시** 박태주 로마노 가정
12811 W. 106th St. Overland Park KS 66215
- 4구역- 13일(토) 7시** 강승석 도미니코 가정
14330 Woodward St. Overland Park KS 66223
- 3구역 - 20일(토) 7시 30분**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8109 W 144th Ter. Overland Park KS 66223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62	216	165	459
차 주	461	217	174	31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아네스)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지안(요한) 정예진(하나)

▣ 현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아),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 애찬 봉사자

금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7일은 3구역 담당입니다.
-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몸 바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용기와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림 묵상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루카 10, 3-5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0-14ㄷ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화답송 :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6,14-18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ㄴ-17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생명의 말씀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오늘 1독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장의 한 부분입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막 돌아온 유대민족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배를 마치고 고국 땅에로의 귀환은 유대민족에게 하느님의 승리로 이해되었지만, 막상 돌아와서 마주한 고국 땅의 실상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도 예루살렘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이사 66,12)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힘든 세상을 돌파해 가는 참된 열쇠임을 믿고,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갈라 6,14)라고 말합니다.

복음 말씀은 일흔두 제자를 선교 파견하시는 대목을 들려줍니다. '일흔둘'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후 그의 세 아들을 통해 불어난 노아의 자손들의 숫자인데,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민족들이 갈라져 나갔다고 하여, '일흔두 제자의 파견'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음의 전도사입니다. 교회가 오늘 복음을 들려주는 까닭은, 우리들도 복음 선포의 사도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지친 내 마음에 평화를 구하기 위해 성당에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힘든 세상을 하느님의 평화로 바꾸기 위해 파견된 사도들입니다.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이사 66,13) 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 지리라'(이사 66,14) 하시는 하느님에게서 용기를 길어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갈라 6,15)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세상의 외형적인 기준으로 참된 행복을 재단하지 않으며,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갈라 6,15)인 하느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꾼이 됩시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신부님! 우리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옆집 율이네 아빠는 맨날 같이 놀아주고 뒷집 희영이 아빠는 맨날 선물 사주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회사 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일해요.

요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딱 그만큼만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의 아빠랑 비교할 만큼,
딱 그만큼만.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루카 10,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하느님께 내맡기는 기쁨

모성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는 축복이며 고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 중 하나를 저희의 보살핌 안에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큰 신뢰를 저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됨의 중요함을 항상 기쁘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 어머니들의 기도 책자 8번째 기도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 첫 미사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강론에서 "모성은 인간애의 토대이며 분열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치료제"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대사회에 '모성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은 영국의 두 할머니, 베로니카와 산드라는 1995년 세 어머니와 함께 처음 '어머니들의 기도'(www.mothersprayers.org)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영성은 '주님께 온전히 내맡김(Surrender to Him)'입니다. 베로니카는 그의 저서 『하느님께 내맡기는 기쁨』(으뜸사랑)에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내맡김으로써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 넘치는 주님의 이끄심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처음 '어머니들의 기도'를 만났을 때 저는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선물을 받은 어머니들이 90여 명, 18개 그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모여 기도 책자(서울대교구 인준)에 따라 기도합니다. 9개 기도

문을 바친 후 십자가 아래 바구니에 저희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사제, 수도자, 대자-대녀)의 이름이 적힌 동그란 종이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바구니) 안에 맡기며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저에게 준 축복은 신앙인으로서 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① 그래(Yes), ② 아직(Not yet), ③ 더 좋은 계획(Something better in mind).

'어머니들의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늘 1번 즉답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2번의 답을 받아들이며 3번의 답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100% 맡기고 기도할 때 저는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큰 치유와 평화, 희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닌 또 하나의 축복은 모성의 확장입니다. 현재 세계 120여 개국, 수만 명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은 우리 자녀들은 물론 기도해줄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김미희 마리스텔라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복음묵상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루카 10:11

캘리그래피
서하영 아폴로니아